

# 공간이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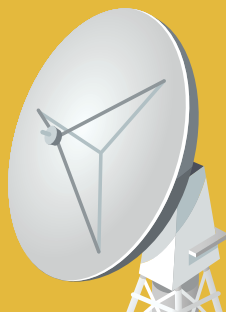
02

2019년 국토지리정보원  
핵심 7대 과제  
전격 해부!



04

단단하고 우직하게,  
측량으로 국토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06

내 일상의 공간이  
증강현실에 펼쳐지다  
by TED



07

Global Issue



2019 독일 공간정보 및 측량 전시회



아프리카 가나, 지리공간정보 및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등

08

NEWS



영국 OS(Ordnance Survey) 컨설팅



한국공간정보 총연합회 창립총회 성황리에 개최

## 포커스

글.  
전재한 (기획정책과 주무관)

한 해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작게는 또 하루의 시작, 시작이란 단어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다.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공간정보 분야의 국가 전문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어떤 해가 될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일컬어지는 지금, 공간정보 분야의 확산과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2019년 <공간여지도> 첫호에서는 기획정책과 전재한 주무관에게 올해의 핵심 7대 전략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2019년 국토지리정보원  
핵심 7대 과제  
전격 해부!



공간정보 분야의 총체적  
집단지성 발현 場을 위한  
국민참여형 협력  
기반 마련

국토지리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여 궁극적인 공간정보 공유 경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간정보 사용자 니즈에 부합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템의 정보교류회, 세미나 및 유관 협력체 등을 이끌게 될 것이다.



## 혁신성장을 주도할 공간정보 캠퍼스 조성 추진

공간정보 캠퍼스는 공공기관 부지에 노후청사 복합 개발로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확충하는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청사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수원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로 청사를 신축하고, 품질기관과 창업센터, 행복주택 제공 등 혁신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26,000㎡ 규모의 공간정보 캠퍼스 부지에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250호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창업센터, 스타트업 지원시설, 학회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공간정보 기술테마파크도 조성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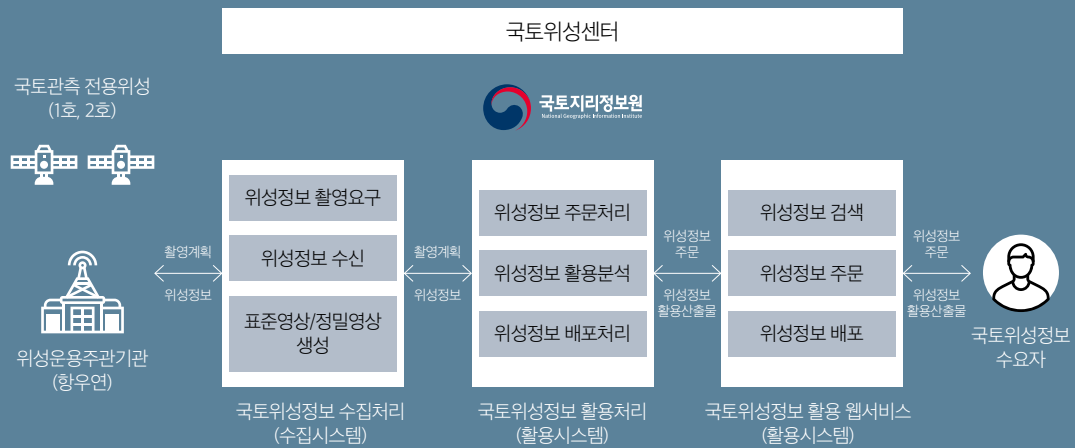
독자적 국토위성  
활용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차질 없는 준비

국도위성센터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로 도약하는 발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도위성 발사 이후 우리나라가 위성센싱 자주국이 되는 2020년 이후에는 통일 한반도 위치 기준과 위성정보 산업발전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국도위성센터는 2019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총 980㎡ 면적의 3층 규모이며, 106종의 전문 장비에 40명의 위성정보 처리 및 연구 전문 인력을 갖출 계획이다.

## 국토위성센터 조감도



## 국토위성정보 활용 방안



남북 경험 지원 등을 위한  
한반도 전역의  
공간정보 구축 확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지도제작·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국가 전문기관으로, 지난 3년간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지역 등 총 23개 주요지역의 1:5,000 제작과 북한 전역의 1:25,000 공간정보도 최신화했다.

또한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시대를 대비해 국가측량망 계획을 수립하고, 범위도 기존의 남한 중심에서 통일 한반도로 확장 할 계획이다. 더불어 남북 인프라 공동건설 지원을 위한 위치기준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에는 남북한 도로 및 철도 연결 사업 지원 등을 위해 북한 주요지역에 대한 1:5,000 상세공간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접경지역인 서해5도 지역 등도 수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최신  
공간정보 지속  
구축·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디지털트윈의 성공요소는 입체감, 현실감이 뛰어난 3차원 공간정보와 실제 공간정보다. 우선 천안·산역 등 5개 KTX역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갖춘 실제 공간정보가 구축된다.

3차원 지형정보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건물의 상세 모양 등 3차원 입체 정보에 대한 확대 구축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인프라 간 자율협력주행을 위해 C-ITS, LDM 기본지도를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에 정밀도로지도를 무상 공급한다. 올해는 서울, 제주의 C-ITS 실증지구 약 3,700km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고, 기존 구축지역의 변화정보의 갱신(일단위)도 이루어 진다.

한편 공간정보 활용 확대화를 위해 국가기본도 생산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쉽고 편리한 국가기본도 활용을 위해 생산자인 국토지리정보원과 기업, 국민 수요자가 직접 연계하여 최신 공간정보의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위치기반 신산업  
지원을 위한 GNSS기반  
실시간 서비스 강화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밀한 위치기준 제공을 위해 2020년까지 GNSS 위성기준점을 강원도에 5점, 전라도에 5점 등 10점을 추가하고 노후화된 위성기준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저가형 수신기의 이동체에 대해서도 정밀 위치결정이 되도록 GNSS 기반 OSR방식 VRS, FKP 외에 SSR방식 PPP-PTK 등 다양한 위치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를 하고,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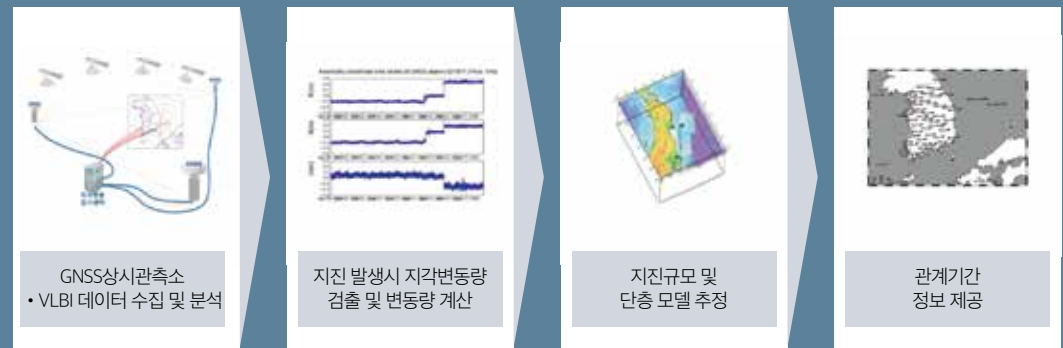
축적된 기술·경험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SDI)  
지식자산화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외 공간정보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얻는 지식 자산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수집성과, 해외사례를 참조해 지식자산체계(안)를 마련하여 웹기반 등록 및 관리가 가능도록 하고, 사용자 이용편의를 위해 SDI(공간정보 인프라) 지식자산 DB화 및 서비스 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 **OSR**: 측위 시 발생하는 각 오차요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VRS, FKP가 있음
- **VRS**: 사용자 주변의 기상 기준국을 통해 관측정보를 생성해 보정하는 방식
- **FKP**: 기준국을 이용한 관측망으로 얻 형태의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 위치를 보정하는 방식
- **SSR**: 측위 시 발생하는 각 오차요인 별로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 **PPP-RTK**: PPP(정밀단독측위)를 접목한 RTK로 SSR 보정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

## 지각변동 감시체계





글. 이종철  
사진. 이상규

# 단단하고 우직하게, 측량으로 국토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 국토측량과 부서 탐방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공간정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측량과 관측을 통해 국민이 위치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곳이 국토측량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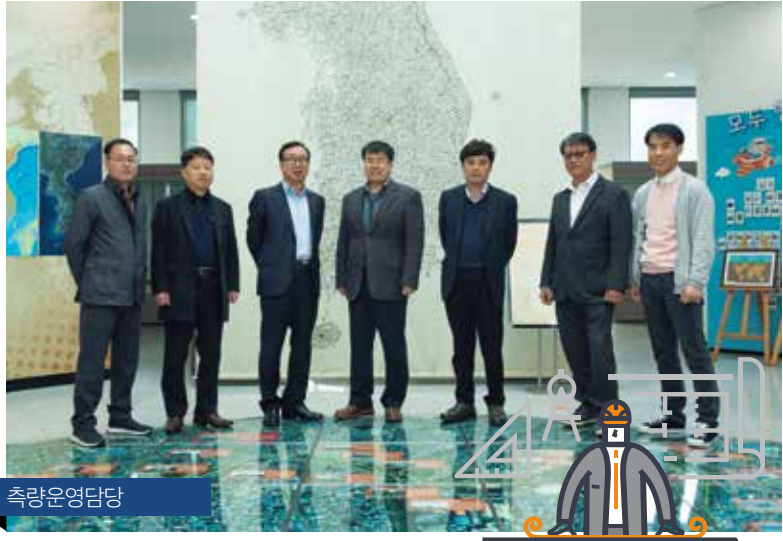
봄비가 내려 풍경이 더없이 차분해진 어느 날, 본관 옆 야외전시장에 국토측량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바람은 제법 차지만 긴장 반 설렘 반 표정으로 사진 포즈를 잡기 시작한다. 스무 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모인 까닭에 위치에 서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렸음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다. 스스로 알아서 철푸덕 잔디 위에 앉아 ‘V’ 포즈를 하기도 하고, 옆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며 싱글벙글 웃기도 한다. 저마다 의상에 신경을 썼음인지 평소의 일상적인 복장과는 조금 다른 듯 “오늘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하며 농담도 건넨다. 화기 애매한 목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느껴진다.

한 부서 안에 고유업무별 네 개의 담당으로 나뉘어 있는 국토측량과, 그중 우주측지관측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다. 이날 부서 탐방을 위해 세 명의 팀원이 먼 거리를 달려왔다. 부서의 중요한 일이라면 어디에 있던 달려올 만큼 소속감이 투철하다. 측량기획담당·측량운영담당·위성측량담당 팀원들도 마찬가지다. “일상적으로 협업하고, 마다않고 참여한다”는 것이 이들의 모토인 셈. 그 모습을 보니 새삼 듬직하게, 단단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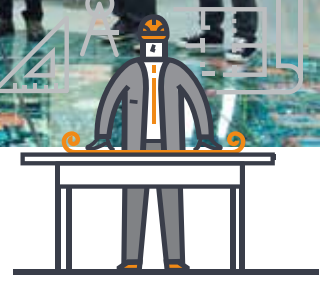
측량기획담당

“일당백으로 일해주는 동료 분들, 사랑합니다!”



측량운영담당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오랜 벗처럼 함께해요”



측량기획담당은 다섯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국내의 측량 정책을 연구·기획하고, 법제도 제안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개발하는 등 여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라면 지오이드 모델을 2014년에서 2018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밖에 아직 미흡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개선을 만들어 정책 제안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또 국회 업무, 감사 업무의 대응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중장기 비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는 국가기준점을 운용하고 고시해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통합기준점 사업, 수준점 운용·관리, 특수 측량 등이 그것이지요. 일급 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부 출장 업무가 꽤 많아요. 올해도 독도와 제주도 등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김숙한 산길에서 차량 고장으로, 더러는 폭설과 폭우로 꼼짝 못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비밀비재하죠(웃음). 근래에 젊은 팀원들이 새로 들어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성측량담당

“보다 정밀한 측량 서비스, 곧 완성됩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우리나라의 우주측량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성기준점을 설치·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GNSS 중앙국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죠. 대부분의 일은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관계 기관과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의와 요청에 응대해주기도 합니다. 네 명의 팀원들이 근무하는데, 업무적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협업이 정말 잘 이뤄지고 있지요. 현재 우리의 현안은 측량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정밀 기술을 활용해 보다 세밀한 수준으로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cm 단위까지 제공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측지 VLBI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관측장비를 통해 우주측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장거리 측량과 대륙간 지각변동을 정밀 관측해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죠. 센터 내에는 일급 명이 함께 부대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산 정상에 위치한 터라 거의 한 공간에서 호흡하다보니 자연히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죠. 종종 홍보관을 찾아오는 일반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아 우주측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도 한답니다.



### mini INTERVIEW

#### 국토측량과 박근복 과장

국토측량과는 국가기본측량을 실시하고 기준설정과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세계측지계 확립, 우주측지기술, 천문측량, 중력측량, 지자기측량도 우리 업무죠. 또 국가기준점 성과관리와 GNSS 상시관측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국가기준망의 완성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연말까지 위성기준점과 통합기준점 구축을 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팀원들의 능력이라면 잘 해낼 것이라 믿어요. 조만간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글:  
최나미

# 내 일상의 공간이 증강현실에 펼쳐지다 by TED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증강현실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게임과 합쳐지며 전 세계인을 열광시킨 증강현실 게임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술과 합쳐지며 처음 보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증강현실이 우리의 일상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바로 '공간'이다. 우리의 공간이 증강현실 속으로 이어지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해보자.



## 공간정보, 증강현실로 그려지다

소프트웨어 설계자인 블레이즈 아케라 이 아카스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된 이미지를 통해 얻은 공간정보를 증강현실과 연계시키는 일이다. 2차원의 이미지에서 기하학적 구조 및 3차원 정보를 얻어 그걸 증강현실에 펼쳐 놓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블레이즈 아케라 이 아카스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단순히 사용자의 정보를 증강현실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증강현실의 토대로 삼는다. 예를 들어 배낭 카메라를 가지고 마켓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다면, 그 모든 메타데이터 및 정보를 활용하여 현장과 동일한 증강현실을 구축한다.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증강현실은 시간 여행도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이 기술을 망원경과 연결하면 어떨까.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원하는 시간의 밤하늘을, 더 나아가 우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강현실 속으로 들어간 우리의 일상 속 공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블레이즈 아케라 이 아카스의 강연을 함께해보자.

- 1 모바일에 설치된 카메라 앱에서 TED 보는 네 가지 방법
- 2 포털 앱(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창에서 오른쪽 메뉴를 선택해 QR코드를 촬영
- 3 TED 한국어 페이지(www.ted.com/translate/languages/ko)나 네이버 TV캐스트(tvcast.naver.com/ted)를 통한 영상 확인
- 4 구글 PLAY 스토어(안드로이드 환경) 또는 애플 앱스토어(iOS 환경)에서 TED 공식 앱을 설치



## 공간을 디지털로 표현하다

스티븐 로울러는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래픽 성능이 높아지고, 네트워크의 빠른 속도가 뒷받침되면서 온라인이 매우 인터랙티브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 공간에 우리의 생활을 데이터화 하기 위해, 그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섞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론 각 데이터에는 태그를 달고, 속성을 정의하여 메타데이터를 만들면서 말이다. 촬영된 공간 영상을 가지고 공간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는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영상의 지리적 정보 등록도 필요하며, 영상들을 조정하기 위한 번들링도 진행되어야 한다. 영상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추출하는 과정도 필수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고액의 비용이 드는 작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수학으로 해결하여 가상 세계를 구축해냈다. 그가 표현해낸 디지털 공간을 보고 싶다면 그의 강연을 통해 확인해보자.



## 아프리카 가나, 지리공간정보 및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비영리 단체인 아프리카 개방형 데이터 및 인터넷 연구 재단(The African Open Data and Internet Research Foundation, 이하 AODIRF)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아프리카 지형 데이터 및 인터넷 회의 2019를 개최한다. 아프리카는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대륙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공간정보는 대부분의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형 공간정보의 역할과 관련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http://afrigeocon.org>



## 지형 공간 세계 포럼(Geospatial World Forum, 이하 GWF) 암스테르담에서 개최

지형 공간 커뮤니티의 세계적 포럼인 GWF 2019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지형 공간의 전문가들의 연례 모임이라 할 수 있는 GWF의 올해 주제는 '#GeospatialByDefault : Empowering Billions'였다. 포럼에 참석한 세계 지리 공간 산업 협의회 의장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공간 데이터는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줄 것이라 강조했다. 3일간 이어진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부처에서 나온 이들이 공간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했다.

<http://geospatialworldforum.org>

## Exhibition

### 2019 독일 공간정보 및 측량 전시회

(2019 INTERGEO - GLOBAL HUB OF THE GEOSPATIAL COMMUNITY)

개최기간	2019-09-17 ~ 09-19
개최지	독일 슈투트가르트
전시장	Am Kochenhof 16, 70192 Stuttgart
주최기관	HINTE GmbH
홈페이지	<a href="http://www.intergeo.de">http://www.intergeo.de</a>



## 영국, 지형 공간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출시

영국의 지형공간위원회(Geospatial Commission)와 그 파트너 기관들이 지형 공간 데이터의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새로운 단일 데이터 탐색 라이선스를 출시했다. 2018년 4월에 중앙 정부가 창설한 지형공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로서, 지형 공간 데이터가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 세계 무대에서 영국의 지형 공간 전문 지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탐사 라이선스는 누구나 연구, 개발 및 혁신 목적으로 영국 지질 조사국, 석탄 당국, HM 토지 등록국, 병문안 조사 및 영국 수로국이 보유한 데이터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자격을 얻는다.



## EU, 모든 스마트 폰에 위성 위치 의무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새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위성 및 Wi-Fi 위치를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이번 규정의 목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발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셀 사이트를 사용하여 발신자를 찾지만, 수 킬로미터의 넓은 반경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이번 규정으로 위성 및 Wi-Fi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발신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의 규정은 새 규정 발표 후 3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2018 독일 공간정보 및 측량 전시회 리뷰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전시회는 매년 독일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10월 1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어 18일까지 전 세계 많은 전문가와 관련자가 방문했다.

2018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질학 및 측량 전시회에는 전 세계 약 38개국 59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3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석해서 한국의 기술을 선보였다.

INTERGEO에 참석하면 계속되어 기기, 측지, 지리 정보, 기술 과학, 레이저 기술 등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 영국 OS(Ordnance Survey) 컨설팅

###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을 위해 진행한 영국 OS(Ordnance Survey) 컨설팅이 2월 22일 완료됐다. 이번 컨설팅은 2월 14일부터 9일 동안 Dan Schirren, Neil Dewfield, Mark Taylor, Andy Tan 등의 OS 컨설턴트들이 진행했다. 컨설팅 기간에는 지리정보과와 공간영상과,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PMO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프로세스 전반의 최신성 확보체계와 관련 기관 연계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 한국공간정보 총연합회 창립총회 성황리에 개최

###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한 공간정보인 모두의 발전을 이뤄나갈 것

지난 2월 15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한국공간정보 총연합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일반회원, 명예회원, 고문 등 공간정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는 비전발표와 임원선출, 그리고 정관이 확정됐다. 유기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디지털이 완전히 재현되는 국토에서는 모든 생활과 비즈니스가 비교할 수 없이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행정의 과학화와 사회문제 해결능력도 한 단계 진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창립한 한국공간정보 총연합회는 우리 미래 세계를 위한 초석이 되어 공간정보인 모두의 뜻을 모아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며, 국토지리정보원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위성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 개최

### 안정적인 위성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3월 11일, 국토위성센터 착공식이 원내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기윤 원장,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 이진우 국토위성센터장 및 임현량 기획정책과장 등 모든 과장이 참석해 안전기원제를 마쳤다. 오는 10월에 완공될 국토위성센터는 국토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생산·관리·제공하고 국토의 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위성센터는 2020년 발사될 차세대중형위성인 국토관측전용위성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품질 공간정보 가공·제공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안정적인 위성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양질의 전문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



### 민통선 지역 내 통합기준점 측량 관계기관 업무회의



지난 2월 18일, 민통선 지역 내 통합기준점 측량 관계기관 간 회의가 열렸다.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운영담당 등 3명, 935정보부대(구 국방지형정보단) 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원조회기간 단축 협조요청, 주말 및 휴일 작업가능 지원, 안전대책, 기설치 된 105점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측량분야 표준품셈 정비를 위한 TF팀 회의



지난 4월 1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6개 기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분야 표준품셈 정비를 위한 TF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측량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를 표준품셈에 반영하여 측량 분야(측지·수로·지적) 품셈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제2차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4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 위원 30명(공무원 11명, 외부위원 19명)과 함께 제2차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서울 시·강원도에 소재한 터널과 산 등의 명칭 및 경계지명(6건)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제4기 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 경희대 주성재 교수를 선출했으며, 지명 심의·의결,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진행했다.



**알립니다**

**결혼**

손현기(국토조사과)

2019. 1. 5(토) 13:00 / 아모아트컨벤션

**전보**

(본부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차병균  
(본부 → 공간영상과) 시설사무관 전부남  
(본부 → 지리정보과) 시설사무관 우병진  
(본부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두환  
(서향청 → 기획정책과) 전산주사보 김선혜  
(지리정보과 → 국토측량과) 시설사무관 정제홍  
(운영지원과 → 국토측량과) 시설주사보 정성태